

사상 첫 800조 슈퍼예산… AI·청년·지역 미래투자에 승부

예산안 확정 전 당정협의회 개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전략 투자
비효율 사업, 구조조정 통해 정리

당정이 21일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사상 첫 800조원대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이 중점적으로 포함되도록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런 당정협의회는 정부가 오는 8월에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하기 전 여당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변곡점 위에 있다”며 “AI(인공지능)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며, 세계 각국이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이끌어 갈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갈릴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한 직무대행은 “내년도 국가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지방주도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래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일 또한 국가 재정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민생 회복과 양극화 완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 예산도 촘촘하게 편성돼야 한다는 점도 기획예산처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장관은 “결코 추가적인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비효율적인 또는

낭비적인 저성과 사업에 대해 저희가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그런 계획대로, 원칙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역대급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저희는 미래 대응 기구를 만들어서 향후에 청년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예결특위 위원장은 “특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의 일자리 주택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면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부지에 어떻게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하는 문제 등 좀 깊이 있게 의논하고 당과 정부가 하나 되는 진실로 하나 되는 그런 길을 한번 열어보도록 열심히 하겠다 (예산안 편성) 법적 기한은 확실하지 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힘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 증폭”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
“정부, ‘카지노식 투자’ 부추겨” 비판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가 출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된 지 두 달 만에 증시를 거대한 ‘도박판’으로 만들었다며, 이를 도입하는 것을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롤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주제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이종욱·박수영·김장겸 의원 주최)에서 “국민들은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다”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일상이 됐다. 오늘 주제에 포함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애당초 들어서 안 될 것을 도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해 도입됐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금을 국내로 되돌려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단일종목 ETF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롤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주제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과 패널들 모습. /박태홍 기자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추종해, 손익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레버리지ETF에 투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면서 특정 종목과 고위험 상품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레버리지ETF의 기계적인 리밸런싱 거래와 신용 투자 확대도 시장 상승기에 특정 종목으로 쏠림을 강화하고 하락기엔 반대매매와 매도 물량을 증가시켜 시장 변동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 불량 상품을 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만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서도 되는 걸 왜 막나’라고 금융위원회를 다그쳤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를 몰랐잖나. 불과 넉달만에 불량상품이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가 카지노가 된 것인데, 김 실장도 이 대통령도 사과 한 마디 없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범여권 공조로 필버 종결… 특검 연장안 가결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우려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의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종결 짓고 표결에 부쳐 2차종합특검 연장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1일 ‘무제한 토론회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24시간이 경과하자 2차종합특검 연장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종결시켰다. 이후 바로 표결된 2차종합특검 연장안은 재석 173인중 찬성 173표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는 산회됐다. 국민의힘에선 윤상현·곽규택·이진숙·김태규·윤용근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한규·김동아·전은수 의원이 무제한 토론회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를 종결 짓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당을 적

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조국혁신당을 당연하게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권한대행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자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의원총회 이후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측에서 보완수사권에 관해)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은 재석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다. 현재 의석수에 따르면 299석 중 18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의 의석수는 161석이기에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지으려면 12석의 조국혁신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등 범여권의 협조가 필수다. /박태홍 기자

與 전대 예비경선 돌입… 내일 결과 발표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으로 압축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21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군 압축을 위한 예비경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23일 예비경선 절차를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 통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대표 후보는 중앙위원 35%, 권리당원 35%,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쳐서 3인으로 압축한다. 현재 당대표에 출마한 이들은 김민석·고민정·정청래·김보미·송영

길(기호순) 후보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반영되는 온라인투표를 통해 후보군을 8인으로 줄인다.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총 14명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박선원·이건태·이성운·김용·박성준·박승원·정민철·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신계륜·김형남(기호순) 후보 등이 등록했다.

우선 진명(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후보는 이진태·김용·박성준·서미화·임미애 후보다. 진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과 가까운 후보까지 포함하면 진명계 최고위원 후보는 10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

온다.

진청(진정청래)계는 한민수·이성운·최민희 후보 등 3명으로 압축된 상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서울 마포를 당원대회 등 공개 행사에서 최고위원 후보들과 함께하는 등 공개적으로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진명계는 진청계가 예비경선 통과를 위해 조직적으로 최고위원 ‘생일 투표’ 전략을 짰다고 비판했다. 앞서 진청계 성향의 커뮤니티에 1~4월생은 최민희·이성운 후보에게, 5~8월생은 이성운·한민수 후보에게, 9~12월생은 최민희·한민수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웹자보가 공유된 바 있다. 진청계 후보 3명을 예비경선에서 모두 통과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

여야,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특검법 합의

특별검사 국민추천위 설치

여야는 21일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세부 내용을 논의한 뒤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문에 따르면 특검법안의 정식 명칭은 ‘제외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추천은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

인으로 구성한다.

국민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임명하기로 했다.

수사범위나 규모, 수사 기간은 추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은 7월 임시국회 중 처리할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저희는 그동안 계속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수정을 제안해서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